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 가구 개발에 관한 연구

김 동 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ooden Furniture Adopting Lamtae Lacquer Technique

Dong Kooi Kim[†]

Department of Interior Materials Engineer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52242, Korea

Abstract: Wooden artifacts are generally manufactured by local materials with cultural characteristics. Bamboo crafts province In recent years, production decreased due to products using resin and new materials, and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bamboo craftsmanship is in a situation of extinction. Among the techniques of bamboo craftsmanship, Lamtae lacquer technique which lacquers on bamboo crafts made of piece bamboo and weaving pattern is applied to wooden craf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roduct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modern residential space, and to make the skill of wood crafts using bamboo be developed and spread the prototype was made of traditional bamboo acts and crafts, furniture made of piece bamboo and weaving pattern, and wooden artifacts such as stationary goods and lighting.

Keywords: Lamtae lacquering technique, bamboo crafts, wood crafts, lacquer, furniture

1. 서 론

1.1. 연구목적

공예품은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재료와 지역의 문화가 내재되어 국가와 지역에 따라 각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

칠기문화도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군의 아호리고분의 유물을 통하여 그 발달의 추이를 가늠하여 볼 때 그 기원은 고대로부터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시대의 칠기 유물을 통하여 칠기에 사용되었던 재료로 목심, 대나무, 도자기, 헛저 등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되었던 칠은 흑칠, 주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물의 내부에는 주칠을 하고 외부에는 흑칠을 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낙랑시대에는 무늬 재료로 주칠을 쓴 것이 보통인데 후기에는 흰색, 녹색, 갈색 등 청색계의 칠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태칠기는 대나무를 소재로 엮거나 죽편을 이용하여 장식한 표면에 옷칠을 하는 기법으로 가구의 표면에 대올로 엮은 죽석으로 감싼 후 옷칠을 하는 가구, 대올로 엮은 상자, 바구니, 통대의 표면에 조각한 칠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일본에서 대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한 기물이 많이 제작 활용되고 있다.

남태칠기는 대나무를 소재로 엮거나 죽편을 이용하여 장식한 표면에 옷칠을 하는 기법으로 가구

2016년 12월 15일 접수; 2017년 1월 6일 수정; 2017년 1월 16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동 귀 (kd6321@gntech.ac.kr)

의 표면에 대올로 엮은 죽석으로 감싼 후 옷칠을 하는 가구, 대올로 엮은 상자, 바구니, 통대의 표면에 조각한 칠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일본에서 대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한 기물이 많이 제작 활용되고 있다.

경남과 전남지역은 강변을 중심으로 대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죽물을 가공한 공예품들이 많이 생산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근래에 이르러 PVC, 유리, 도자,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기물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용의 빈도가 매우 낮아져 민예품적인 성격의 제품으로 그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나무의 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문목의 희귀재의 대체 재료로서의 가능성 타진, 남태 칠의 시편을 상감재로서의 활용, 조명 등의 제작을 통한 가구 개발로 남태 칠 기법의 계승과 전통가구 제작을 위한 재료 및 시문기법의 개발로 전통가구 현대화를 위한 시도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가구의 개발은 옷칠과, 정제칠, 색칠을 교칠하여 제작한 재료를 목 가구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다탁장, 문갑, 문방용품, 지칼, 조명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남태 칠 기법으로 제작한 시편을 상감재로 이용하는 방법, 오동 낙동법과 오죽의 재료와 결합시키는 방법, 남태 칠 기법의 시편을 전통가구의 문목 대체 재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 남태 칠 시편의 표면에 빛을 투과시켜 남태 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옷칠과 색칠의 교칠 작업을 통하여 전통가구의 상감재료와 희귀목의 대체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하였다.

2. 남태칠기의 일반적 고찰

2.1. 남태칠기의 정의

남태칠기는 대나무를 소지로 한 백골에 옷칠한 칠기를 말한다. 남태칠기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극

히 희박하여 전통 남태칠기 제작기법을 정확하게 밝힐 자료가 없다. 그러나 수집된 유물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남태칠기 제작 방법으로 대쪽을 종잇장처럼 짜개고 훑어 대 올을 만들어 엮어 짠 위에 옷칠하는 방법과 가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나무 백골 표면에 붙인 위에 옷칠하는 죽장방법, 죽편이나 통 대나무 표피에 그림을 새기고 옷칠을 하여 그림을 돌출시키는 방법, 통 대나무 표면을 조각하고 옷칠로 도장하는 방법. 그리고 통 대나무 위에 직접 옷칠하는 방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남태칠기의 역사

한반도에서의 죽세공품의 역사를 소급해 보면 기원 전후의 오랜 유물이 잔존함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낙랑 출토품이다. 평양 인근의 채업총에서 발견된 인물칠화죽상은 비록 그것이 한 대 칠기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미 한반도에서 죽세공 기술의 전파를 시사하는 것이며, 그밖에도 함께 평양 교외 출토인 왕광묘의 대비녀, 왕우묘의 대빛 등 낙랑고분에서는 죽물이 적잖게 발견되었다(이 1988)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태 칠 기법은 오래전부터 기물제작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태기법에 관한 자료는 국내외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과 각종 도록 및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유물 화보 등을 통하여 시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유물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으며 남태칠기 제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본의 제품과 함께. 조사한 유물별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이상으로 한국의 남태칠기 유물자료(Table 1.1-10)와 일본작품(Table 1.11-18)을 살펴본 결과 대쪽을 종잇장처럼 쪼개고, 훑어 대 올을 만들어 엮어 짠 위에 옷칠하는 방법. 가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나무 백골 표면에 붙여 옷칠하는 죽장 방법, 죽편이나 통 대나무 표피에 그림을 새기고 그 외의 부분을 벗겨낸 다음 옷칠을 하여 그림을 돌출(양각)시키는 방법, 통 대나무 표면을 조각하여 칠을 입히는 방법 그리고 통 대나무에 직접 옷칠하는 방법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Lamtae Lacquering Technique Artifact Material

번호	칠기명	특 징	자료근거	출 처
1	채화칠협	대나무 껍질(대 울)을 이중으로 싼 대바구니에 칠을 입힌 남태칠기로, 인물화상, 연화문, 와문, 만화문, 계능용문 등을 시문한 것이다.		
2	죽장서안	천판에 가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기하학적 문양으로 씌운 것이다.		서울 개인소장
3	죽장연상	가벼운 오동판에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표면을 기하학적으로 시문한 것이다.		고려대학 박물관
4	죽각지통	죽편의 표면에 도안하여 그림을 새기고 그 외의 피죽 부분을 벗겨 내고 흑칠하여 그림만 두드러지게 한 다음 7첩 화형으로 시문한 것이다.		호암 미술관
5	죽장2층 농	소나무 백골 위에 죽장한 것으로 울거미는 굵은 대로 하고 알갱이는 세죽살로 삿자리와 같은 효과로 이중으로 내어 시문한 것이다.		개인소장
6	죽장2층 책탁자	쇠목이나 기둥 등,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굵은 통대를 사용하고 복판을 제외한 판재는 가느다란 통대를 붙였다. 죽피에 약품을 바르고 불에 쪄여 갈색으로 변하는 점반죽법을 사용하여 낙죽 효과를 살려 시문한 것이다.		이화여대 박물관
7	전 통	겉대를 살려 근자 등을 음각하고 속대로 골을 파서 뇌문과 함께 지문으로 삼고 옷칠로 마감한 것이다.		국립 중앙 박물관
8	전 통	뚜껑과 통은 망두경첩으로 연결하고 바닥과 뚜껑과 통의 연결 부위에는 민짜와 여의두무늬의 투갑과 띠를 두르고 표면에는 생칠을 마감한 것이다.		국립 중앙 박물관
9	죽장 이중농	백골 표면에 대나무를 붙인 긴 천판과 양측 면에 굵은 대나무, 전면에는 쪼갠 세죽을 시문한 것이다.		김상륜 소장
10	죽장고비	왕대의 겉대를 가느다랗게 저민 대오리만을 이용하여 마치 띠살 창 모양으로 간결하게 짜서 내용물이 비쳐 보이게 고안한 것으로 생칠로 마감한 것이다.		윤병훈 소장

To be continued

Table 1. Continued

번호	칠기명	특 징	자료근거	출처
11	남태나전칠 이층농	제19회 전승공예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적당한 폭으로 쪼갠 대나무를 엮은 후 표면에 옷칠을 하면서 나전을 곱음질 기법으로 시문한 것이다.		정병호 소장
12	죽 합	대를 잘게 쪼개어 엮은 후 생칠과 흑칠교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13	죽 합	대를 잘게 쪼개어 엮은 후 생칠과 주칠로 교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14	죽상자	통대를 굵게 테를 만든 후 잘게 쪼갠 대로 통대나무은 후 생칠과 주칠 교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15	화 병	통대를 굵게 테를 만든 후 화병의 뼈대를 만들고 잘게 쪼갠 대로 통대나무은 후 옷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16	도시락	통대를 굵게 테를 만든 후 화병의 뼈대를 만들고 잘게 쪼갠 대로 통대나무은 후 옷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18	킵받침	왕대와 오죽을 잘게 쪼개어 통대나무은 후 생칠작업을 한 것이다.		개인소장

2.3. 남태칠기 소재 특성

남태칠기의 소지재료인 대나무는 단자엽식물(單子葉植物)로 화목파(未木科)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당죽(居竹), 포대죽(布竹), 담죽(淡竹), 운문죽(雲紋竹), 맹종죽(攄宗竹), 흑죽(黑竹), 진죽(眞竹), 함죽(含竹) 등 19종이 자생 또는 재배된다.

대나무는 수목과 달라서 그 내부에 새로운 층을 만들면서 성장하므로 해를 거듭하면서 대의 경도와 비중이 증가한다. 이들 죽재의 일반적인 특성은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으며 나이테가 없다. 재질은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풍부하며 가벼움에 비해 강인하고 저항력이 있으며 건조에 의한 수축이 극히 적다.

대나무의 가공방법으로는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 사용한 대 울,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백골의 목재 위에 부착한 죽장, 통대를 쪼개어 표피에 문양을 그린 후 표피만을 남기고 옷칠하여 사용하던 죽편, 전통과 같이 표피에 문양을 그린 후 파내어 옷칠

하여 사용하던 통대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대마디의 간격이 불규칙하여 거북등처럼 생긴 구갑죽, 연륜에 따라 표피의 색깔이 갈색, 흑색으로 변하는 오죽, 대통의 굵기가 큰 왕대 등이 사용되어졌다.

대나무의 표피 위에 사용하는 칠은 옷칠을 사용하며 칠하기 전에 틈을 메우기 위하여 골회와 토분, 목분, 찻쌀과 옷칠을 혼합한 재료를 바른 후 생칠, 정제칠, 주칠이 사용되었다.

3. 남태칠기 제작기법

3.1. 남태칠기 제작기법

남태칠기의 제작기법은 고대 낙랑시대의 출토 유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발생 기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래에 이르러 민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죽공예품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PVC, 유리, 도자, 금속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대나무를 다루는 장인들도 점점 줄어들어 남태칠기의 제품과 남태칠기 제작기법에 대한 자료가 나전칠기와 칠화에 비하여 연구 자료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며 전승기법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수자들에 의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조사된 자료인 정해조의 남태칠기 유물자료를 분석 규명한 전통남태칠기 제작기법과 기술의 정립에서 수록한 자료(한국공예학회지 Vol. 4. 141-167)와 아래의 남태 칠기법에 관하여 보고된 문화재위원을 지낸 김성수 관장(통영옷칠미술관)의 무형문화재 공예종목 발굴 기능조사 연구보고서 제229호(칠장). 26-28에 수록한 제작기법을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남태칠기의 제작기법은

3.1.1. 편죽을 감춘기법

① 죽편, ② 생칠, ③ 칠 골회(목분+생칠), ④ 2차 골회(토분+생칠), ⑤ 물갈이, ⑥ 옷칠

3.1.2. 죽편을 노출시킨 기법 공정 1

① 죽편, ② 생칠, ③ 골회의 칠 성분을 조금 약

하게(토분 100%+50%) 배합하여 죽편을 엮음(내부와 외부로 곱게 발라 엮음 공간을 메운다). ④ 물갈이를 곱게 하여 엮음의 공간만 메운다. ⑤ 엮음의 부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골회를 다시 발라 손질한다. ⑥ 생 옷칠을 수회한다. ⑦ 생칠 및 주합 칠을 수회하여 마감한다(형태에 따라 나전으로 무늬를 시문한다).

3.1.3. 죽편을 노출시킨 기법공정 2

① 죽편, ② 생칠, ③ 골회(조개껍질분말+아교), ④ 물 갈기하여 대 엮음의 공간만 메운다. ⑤ 엮음의 부위에 따라 골회로 다시 손질한다. ⑥ 포르말린을 바른다. ⑦ 수회 옷칠을 한다. ⑧ 형태에 따라 나전으로 무늬를 시문한다. ⑨ 정제한 생칠로 수회 칠하여 마감한다.

3.1.4. 공정기법

① 죽편, ② 생칠, ③ 내부에는 칠풀(생칠+찻쌀풀)로 한지를 바르고 골회(토분+생칠)를 3회 정도 곱게 바른다. ④ 외부의 표면은 대 엮음의 공간만 메운다. ⑤ 내부는 감춘기법으로 주칠(적색)을 하고 내부중앙은 무늬를 시문한다. ⑥ 외부는 노출기법으로 죽편의 엮음이 보이게 곱게 칠하여 남태의미를 돋보이게 한다.

※ 형태에 따라 외면이나 내면 어느 한 부분을 칠풀로 한지나 형겅만 바르고 그 위에 칠을 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3.1.5. 죽편상감기법

① 죽편, ② 죽편의 엮음을 판자 위에 접촉시키기 위해 죽편을 판자크기대로 선을 긋고 선 양 옆에 테이프를 붙인다. ③ 절단위치의 선을 따라 판자크기대로 가위로 잘라낸다. ④ 죽편을 붙일 판자 위에 포르말린을 칠한다. ⑤ 죽편 뒷면에 접착력이 강한 아교 칠을 한다. ⑥ 판자 위에 죽편을 붙이고 유리병 같은 긴 원통으로 죽편 위를 문지르듯 골고루 굴리면서 접촉시킨다. ⑦ 완전히 마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표면에 묻은 아교를 깨끗이 씻어내고 말린다. ⑧ 표면에 골고루 포르말린을 칠하여 고착시킨다. ⑨ 상감할 부분을 싯톱으로 오려 내거



Fig. 1. Frame work.



Fig. 2. Lacquering.

나 조각도로 깊이를 적당하게 파내고 상감한다(죽편을 판자에 접착하지 않고 상감할 부분을 올려내고 상감하기도 한다).

3.1.6. 죽편 착색기법 죽편상감기법 또는 세션 같은 편죽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죽공예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정 2001)으로 기술하였는데 남태 칠의 제작공정은 나전칠기에서 칠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골회 바르기와는 다르게 죽편의 틈 사이를 메우는 작업으로 엮은 공간을 메운다.

3.2. 남태칠기 제작과정

남태칠기를 이용한 가구의 제작과정은 백골제작 - 밑칠하기 - 밑칠 면 갈기 - 초칠하기 - 초칠 면 갈기 - 두 번째 칠하기 - 두 번째 칠한 면 갈기 - 세 번째 칠하기 - 세 번째 칠한 면 갈기 - 네 번째 칠하기 - 네 번째 칠한 면 갈기 - 다섯 번째 칠하기 - 다섯 번째 칠한 면 갈기 - 여섯 번째 칠하기 - 여섯 번째 칠한 면 갈기 - 일곱 번째 칠하기 - 일곱 번째 칠한 면 갈기 - 상칠하기(정 2001) 순으로 기술하였는데 이 과정은 나전칠기의 작업과 유사하다.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가구 제작에는 죽편을 엮은 후 가구의 표면에 부착하여 제작하는 방법과 죽편을 잘게 쪼개어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부착하여 제작하는 작업이 대부분인데 대를 엮는 작업이나 죽편으로 시문할 때 생기는 틈 사이를 메우는



Fig. 3. Assembling.



Fig. 4. Completion.

작업으로 백골에 골회를 바르고 작업을 하여야 죽편사이에 칠이 고이지 않고 고르게 칠할 수 있으며 칠과 사포질 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칠장에서 건조시켜 완성하는 과정으로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가구의 제작과정은 백골제작(Fig. 1) - 칠하기와 사포질하기(Fig. 2) - 문판조립(Fig. 3) - 완성(Fig. 4) 순으로 제작된다.

4.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 가구 개발

4.1. 디자인 개요

본 연구는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가구의 개발은 전통가구 제작을 할 때 좋은 목늪의 무늬를 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전통가구의 현대화를 위한 시문기법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남태 칠 문판을 사용한 다탁장, 남태 칠을 상감재로 활용하여 제작한 문방용품, 낙동기법과 남태 칠 재료인 오죽과 색감의 동질성을 이용한 문갑, 그리고 편죽하여 엮은 틈사이로 빛을 투과되면서 남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조명등의 목가구 개발을 통하여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재료의 활용가능성과 가구 제작의 시문기법으로 활용하고자 디자인하였다.

4.2.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 가구 디자인

4.2.1. 남태 칠 다탁 장 디자인

느릅나무로 제작한 전통가구인 책장의 문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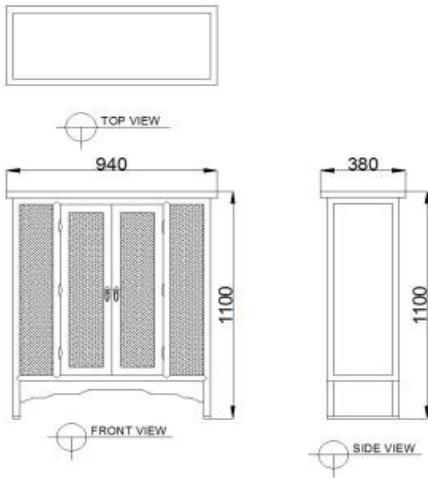


Fig. 5. Tea Ch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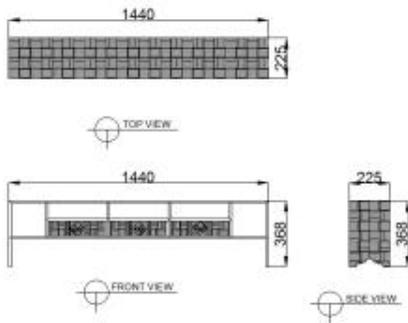


Fig. 6. Document chest.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나무를 얇게 다듬어 엮은 후 생칠과 색칠을 교칠 작업한 남태 칠 문판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희귀목의 대체 재료로서 활용가능성과 전통가구 현대화 작업을 시도하였다(Fig. 5).

4.2.2. 남태 칠 문갑디자인

오동나무로 외문갑의 백골을 제작한 후 표면을 인두로 태우고, 천판과 옆널, 서랍의 전면에 오죽을 죽편으로 부착하여 오죽의 표피의 질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제 칠로 마감하였다(Fig. 6).

4.2.3. 남태 칠 데스크서비스 디자인

데스크서비스 제품인 수납함 세트의 중앙에 대

나무를 얇게 다듬은 후 엮은 편죽문양을 상감한 후 생칠과 붉은색 옷칠을 교칠하여 마감하였다(Fig. 7).

4.2.5. 남태 칠 페이퍼나이프 디자인

통대를 쪼개어 제작한 페이퍼나이프 안쪽 면에 대나무를 얇게 다듬은 후 엮은 죽편을 상감한 후 생칠과 붉은색 옷칠을 교칠 작업하여 마감하였다(Fig. 8).

4.2.6. 남태 칠 조명디자인

아크릴 표면에 대나무를 얇게 다듬어 엮은 죽편을 부착한 후 생칠과 황색, 적색 옷칠을 교칠 작업하여 불빛이 옷칠한 틈사이로 비쳐 나오게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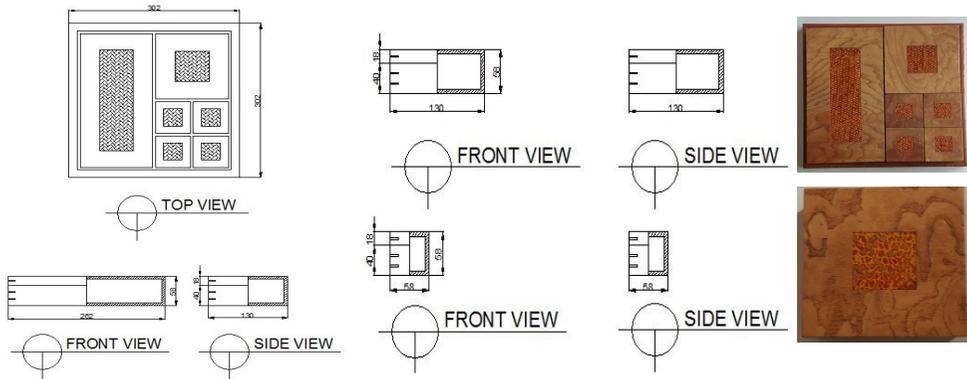


Fig. 7. Desk Service.



Fig. 8. Paper Knife.



Fig. 9. Lamp.

남태 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등으로 제작하였다(Fig. 9).

5. 결 론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가구의 시제품을 제작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통가구인 책장의 문판의 시문재료로 생칠과 흑칠, 황색, 붉은색 색칠로 교칠한 문판을 시

문하여 전통가구 제작 시 사용되는 희귀재료의 대체 재료로서와 전통가구 현대화를 위한 시문기법의 가능성을 찾아 적용하였다.

둘째, 오동나무 문갑의 백골을 낙동법으로 처리한 표면에 오죽을 잘게 쪼갠 죽편을 시문하여 연륜에 따라 표피의 색깔이 암갈색에서 흑색으로 변하는 오죽의 색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정제칠로 마감하는 작업을 통하여 오죽의 재료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문구용품의 중앙과 측면으로 제작한 paper knife 표면에 남태 칠 기법의 시편을 상감하여 장식효과를 부과시켰다.

넷째,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엮은 대 올 틈사이로 빛을 투과될 수 있게 제작한 조명 등의 제작을 통하여 남태 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전통 남태 칠 기법을 이용한 목 가구 제작의 시문기법은 남태 칠 기법에 대한 전승과 전통가구 제작의 문목의 대체 재료로서의 이용과 전통가구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 되리라 생각하며 상감재료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연구되길 기대한다.

사 사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 고 문 헌

- 이종석. 1988. 한국의 목공예 상·하. 열화당. 211.
 이종석. 2005. 김동우 공저 목칠공예. 술. 136, 182.
 정해조. 1991. 전통남태칠기 제작기법과 기술의 정립. 한국조형디자인학회. 137-164.
 진홍섭. 1986. 한국문화재대계 국보10, 예경문화사. 143.
 최순우. 1974. 한국미술전집 13 목칠공예, 동화출판공사. 30-154.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목공예명품도록. 삼화인쇄사. 79, 2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삼성문화인쇄. 8-9.
 호암미술관. 2002. 조선목가구대전. 삼성문화재단. 78, 117.